

쌀 수급 시정과 전망

96년도 쌀 수급사정을 보면 총공급량은 3천8백11만6천석으로 생산량 3천2백60만1천석, 전년이월 4백71만석 그리고 수입량 79만6천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쌀의 총수요량은 3천6백41만7천석으로 식량용 3천2백96만2천석, 가공용이 1백45만5천석, 감모량 1백73만7천석, 그리고 종자용이 26만3천석이다.

97년도 쌀 수급전망을 보면 총공

자급률 높이는 쌀증산시책

정부의 쌀 산업종합대책은 근본적으로 쌀산업이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규모화와 구조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지원시책과 생산자에 대한 경제적 유인책과 생산비절감이 가능하도록 적극 유도되어야 할 것이다.



권 원 달
충북대학교 교수

급량은 3천9백19만2천석으로 생산량 3천6백95만9천석과 전년이월량 1백69만9천석 그리고 최소시장접근에 의한 수입량을 53만4천석으로 전망하고 있다. 쌀의 총수요량은 3천4백99만1천석으로 식량용 3천2백55만2천석, 감모 등 1백47만8천석, 가공용 70만석 및 종자용으로 26만1천석을 전망하고 있다.

97년 쌀 자급률 105.6% 전망

쌀의 연말 재고량은 96년에 1백

69만9천석이었으나 금년은 4백 20만1천석으로 전망하고 있다. 1인당 연간소비량은 작년의 104.9kg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쌀의 자급도는 작년의 89.5%에서 금년은 105.6%로 전망하고 있다. 쌀의 재고량도 과거와는 달리 신곡위주의 양질미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96년의 쌀생산량은 사상 최대의 풍작으로 10a당 단위수량이 5백7kg에 이르러 결과적으로 금년의 쌀 자급률을 106%수준으로 전망하게 되었다. 이러한 기록은 최상의 기상조건과 양질 다수성 품종의 보급, 기반정비 및 병해충방제 등에 힘입은바 크다.

정부는 97년 쌀생산목표를 96년 목표대비 10만석이 증가한 3천3백80만석으로 계획하고 재배면적은 1백4만5천ha로, 단위수량은 10a당 4백66kg 생산을 목표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중점 추진시책을 보면 휴경논에 벼 재배추진, 간척지 확대, 논 잠식억제를 통한 벼 재배면적을 확대 추진하고 단위수량 증대를 위한 알뜰영농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96년에 이어 연속적인 쌀 증산시책을 추진하여 자급률을 높인다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전체 곡물 자급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 70년도 80.5%, 80년 56.0%, 90년 43.1%, 94년 28.0%, 96년은

25.9%로 계속 떨어졌으며 이는 주로 사료용 곡물 수입이 계속 되었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에 쌀 자급도를 보면 70년 93.1%, 80년 95.1%, 90년 108.3%, 94년 87.8%, 96년에는 92.2%로 나타나서 쌀자급은 시책개발에 따라 가능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쌀 소비량도 계속 감소되고 있어 수급규모를 줄이고 있다. 1인당 연간 쌀소비량을 보면 70년 136.4kg, 80년 132.4kg, 90년 119.6kg, 94년 108.3kg, 그리고 96년에는 104.3kg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도시가구의 쌀소비 감소율은 더욱 줄어들고 있다. 게다가 쌀소비의 소득계층별, 지역별

차이가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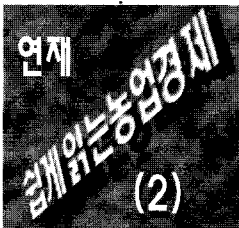
달라지는 양정 - 약정수매제도

그동안 정부의 추곡수매제도는 쌀 재배농가의 쌀값유지를 위해 기여를 하였으나 수매가와 수매량이 최근 몇 년간 동결되면서 농가에 실익을 주지 못하였고 UR협상과 세계무역기구의 출범으로 수매제도가 농민의 기대를 충족할 수 없게 되었다.

96년산 추곡수매는 정부 직접 수매 5백만석, 농협차액지급수매 3백80만석을 합쳐 8백80만석을 수매하였으며 수매가도 4%를 인상하였다.

그러나 추곡수매제도는 국·내외의 양정여건으로 더 이상 수매





우리나라의 쌀 산업정책은 국제시장가격의 불안정과 안정된 공급 능력을 유지하고 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생산과 유통의 효율성을 높여 국내가격을 국제가격에 접근시키고 민간 유통기능을 활성화하고 시장참여자의 역할 분담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개방경제하에서 추구할 정책방향이다.

량과 수매가를 인상할 수 없게되어 새로운 양정제도로 전환하여 현재 추진되고 있다.

현재 추진중인 약정수매제도는 영농기 이전에 농가와 정부가 농협을 통하여 예시된 가격으로 출하약정을 체결하는 제도로서 약정농가에 약정금액의 40%를 선도금으로 지급하며 약정을 파기하는 농가는 지급된 선도금에 7% 금리를 계산하여 상환한다는 것이다.

현재 약정수매물량이 농가에 배정되고 약정 체결중이며 4월부터 선도금을 농가에 지급하게 된다. 만약 출하약정 이행물량이 계획치에 미달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직접 시가로 매입하여 정부가 필요로 하는 물량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약정수매 희망농가 크게늘어

금년산 쌀부터 약정수매제를 실시하면서 추곡수매 보완대책을 실시한다. 예컨대 미곡종합처리장, 농협 등에서 96년산 쌀에 대해 3백만석 수준의 시가매입을 별도로 추진하여 정부수매를 보완하고 쌀값 계절진폭을 계속 허용하여 민간유통기능을 더욱 활성화하고 소비자 기호에 맞는 양질미 생산체제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또한 농업경영자금 5천억원을 확보하여 농업진흥지역에 특별 지원하여 생산의욕을 고취하고

생산기반정비와 기계화, 신품종 개발 등 의욕적인 지원시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쌀재배농가에 직접지불제도도 실시하여 65세 이상된 고령농가가 은퇴를 희망하면서 경작농지를 쌀 전업농에게 매도하거나 5년이상 장기임대할 경우 소득보조금을 ha당 2백58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현재 약정수매물량 8백50만석은 전년도 생산량, 수매실적, 생산계획량을 감안하여 시·도별로 물량을 배정하여 리·동 수매협의회 주관으로 농가별 수매물량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약정 체결을 하고 있다.

현재 약정수매물량을 희망하는 농가는 예상외로 많아 계획량보다 많이 희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행정수요의 폭주로 일선행정과 단위농협의 업무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쌀 산업정책의 추진과 평가

쌀 산업정책은 농정시책중 비교적 성과를 거두면서 착실하게 추진되어 왔다. 1993년 8월 정부는 양정개혁을 발표하면서 미곡시장에 정부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유통기능을 활성화하여 생산농가의 실질소득을 향상하고 수매 방출제도도 시장원리에 맞는 제도로 전환한다는 기본방향을 정립하였다.

정부의 쌀산업정책은 93년의

양정개혁 추진이래 획기적인 정책전환을 하였던 것이다. 그 이후 94년 11월의 쌀산업 경쟁력제고 대책, 96년 6월의 쌀산업 종합대책으로 정책체계를 유지해왔다.

쌀산업 종합대책은 90년대 이후 쌀재배면적이 계속 감소되고 산지 쌀값이 수매가격에 접근되면서 시장원리에 적합한 수매제도를 도입한다는 배경하에 추진되었던 것이다.

시책의 기본방향은 국제시장의 공급 및 가격불안정에 대응할 수 있도록 쌀 자급기반을 확충하고 쌀 생산도 규모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대외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쌀산업도 국제경쟁력 높일때

쌀산업종합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수단은 농지전용억제, 논에 벼 이외의 작목을 재배할 경우 지원을 축소하고 농업진흥지역내 쌀 재배농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약정수매제도 도입과 규모화 촉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하는 등 정책수단을 종합적으로 동원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쌀 산업정책은 국제시장가격의 불안정과 안정된 공급능력을 유지하고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생산과 유통의 효율성을 높여 국내가격을 국제가격에 접근시키고 민간유통기능을 활성화하고 시장참여자

의 역할분담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개방체제하에서 추구할 정책방향이다.

따라서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가격안정과 공급안정을 할 수 있는 시장의 수급조절기능을 확충하고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유지하여 쌀산업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우선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책목표에 맞추어 정부는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책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민간유통 활성화와 시장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수매제도 개편, 정부보유 양곡의 방출방식 개편, 각종 규제의 완화와 미곡종합처리장 육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쌀의 수급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재배면적 확보 등 적극적인 공급 측면의 시책개발과 수요 측면의 시책도 추진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구조조정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정부의 쌀 산업종합대책은 근본적으로 쌀산업이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규모화와 구조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지원시책과 생산자에 대한 경제적 유인책과 생산비절감이 가능하도록 적극 유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시장기능을 통한 민간유통활성화 방향은 근본적으로 시

장기능이 활성화되고 상인자본 유치와 차별화를 통한 쌀의 차별가격이 형성될 수 있는 시장구조와 기능이 회복되어야 할 것이다.

쌀의 유통단계에서 도매시장기능이 활성화되어 도매시장을 통한 쌀의 수급조절, 가격형성, 집하와 분산이 원활화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의 미곡종합처리장을 통한 생산, 가공, 유통의 계열화도 도매시장기능이 활성화되어 기준가격을 형성하여야 할 것이다. 쌀의 민간시장 활성화는 집하와 분산기능을 연결하는 도매시장기능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농약정보**

